

한국 스포츠 경제

sporbiz.co.kr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15판

한스경제 Brief

삼성, 첫 페넌트 출신 여성 CEO 나올까

삼성이 오는 7일께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고 13일께 임원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승진 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정기인사인 만큼 이번 임원 승진 대상자와 규모 등에 촉각이 모아진다.

이번 삼성 임원인사 주요 관련 포인트로는 비오너 출신 여성 최고경영자(CEO) 최초 탄생 여부와 생활가전사업부 수장 인사, 경제연 삼성전자 DS(반도체)부부장 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 등이 꼽힌다.

최정화 기자
▶기사 8편

리딩뱅크 탈환 신한 진옥동 연임 청신호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옥동(사진) 신한은행장이 그룹 내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의 평가 지표인 실적은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며 '맛수'인 KB국민은행을 제치고 리딩뱅크를 탈환한 것을 비롯해 업계 최대 이슈인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진 행장이 임기 중 보인 성과를 두고 재연임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신한금융그룹이 부회장직을 신설한다면 지주 임원으로의 영전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영선 기자
▶기사 15편

1조5600억 vs 2260억... 벤투호 '겁없는 도전'

내일 새벽 브라질과 16강전



한국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3일 오전(한국 시각)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두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 16강 진출에 성공한 뒤 그라운드를 내달려 기뻐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브라질의 간판 스타 네이마르. 연합뉴스

11억4000만 유로(약 1조5600억 원)와 1억 6448만 유로(약 2260억 원), 축구 이적시장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가 공개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 선수단과 한국 선수단의 시장 가치다. 몸값에서 한국은 브라질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파울루 벤투(53)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6일 오전 4시(이하 한국 시각)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브라질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벌인다.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는 '호화군단' 브라질을 상대로 대반전을 꿈꾼다.

23년 전 '잠실의 기적' 재현 가능성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비싼 몸값을 기록한 선수인 김민준(26)을 제외하고는 2000년 10월 1일 열린 포르투갈(2승 1패-승점 6)과 함께 16강에 올랐다.

FIFA랭킹 1위 호화군단과 맞대결 역대 전적·객관적 전력 한참 밀려 99년 승리 주역 김도훈 "자신감 중요" 전문가 "밀리는 점유율 욕심 말고 밀집 수비후 막판에 승부 걸어야"

벤투호는 객관적 전력에서 브라질에 한참을 뒤진다. 브라질은 월드컵 최다(5회) 우승국으로 이번 대회 G조 조별리그를 1위(2승 1패-승점 6)로 통과했다. 통산 본선 진출 횟수도 한국(11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22회다. 여태까지 치러진 모든 월드컵 본선에 나섰다. 한국(28위)은 FIFA 랭킹에서도 브라질(1위)에 크게 처져 있다. 한국은 A매치 상대 전적 역시 1승 6패로 뒤진다. 가장 최근 맞대결인 지난 6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도 1-5 완패를 당했다. 네이마르(30) 등 간판 스타들에게 대량 실점했다.

물론 벤투호가 도전자의 위치인 만큼 잃을 건 없다. 축구공은 둥글다. 한국 축구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당시 FIFA 랭킹 1위 독일을 2-0으로 제압하며 '카전의 기적'을 썼다. 23년 전 '잠실의 기적'도 기억하고 있다. 1999년 3월 28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 친선 경기에서 당시 FIFA 랭

킹 1위였던 브라질을 1-0으로 눌렀다. 하바우두(50), 카푸(52) 등이 간재한 브라질을 꺾은 건 큰 이변이었다.

결승골을 넣었던 김도훈(52) 전 감독은 훗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어떤 경기든 나설 땐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 자신감도 중요하다. 자신감은 경기장에서 선수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 상대가 강하다고 해도 부딪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골 결정력 높이는 공격이 관건"

브라질은 조별리그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네이마르는 한국과 16강전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공격수 가브리에우 제주스(25), 센터백 알렉스 테리스(30)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하사틀리송(25), 카제미루(30), 비니시우스 주니오르(22) 등 스타들이 여전히 포진해 있다.

김대길(56) KBS N 축구 해설위원은 브라질전에서 전술적 선택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6월 A매치 패배 때 한국은 빌드업, 점유율 부분에서 욕심을 냈다. 잘못된 전술적 선택이었다"며 "이번 대회 조별리그 카메룬전(0-1 패), 스위스전(1-0 승) 등 3경기를 보면, 브라질의 점유율과 슈팅 수가 대부분 많았다. 한국과 경기에서 브라질의 볼 점유율과 지배력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걸 역지로 뒤집으려

했다간 더 많은 실점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국은 수비 지역의 밀집도를 높여 상대 공격 봉쇄에 나서야 한다. 정지된 장면에서 공격 또는 이강인(21)의 원발, 손흥민(30), 황희찬(26)의 공격 등으로 상대 골문을 노려야 한다. 브라질을 상대로 슈팅 수를 많이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얼마만큼 결정력 높이는 공격을 할 수 있느냐에서 해답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비 밀집도를 높여 상대의 세밀한 공격을 봉쇄하면 브라질은 막판으로 갈수록 심리적으로 꺾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허점도 드러날 가능성이 열린다. 그럴 때 승부를 걸어야 한다. 연장전이냐 승부차기까지 끈질기게 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대 약점으로는 원목 측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길 위원은 "상대의 원목 풀백 자원 부분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부상 중인 알렉스 산드로(31)가 회복돼 돌아올지가 관건이다. 측면 쪽이 불안하다면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공략할 수 있다"고 봤다.

벤투호 선수들은 16강 진출로 포상금만 1인당 1억 원을 확보했다. 16강전에서 브라질까지 꺾으면 선수당 받게 되는 포상금 액수는 2억 원으로 늘어난다. 벤투호는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 국민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려 한다.

박종민 기자 min@sporbiz.co.kr
▶관련 기사 2-3편

경기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복지는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사담 콜센터
☎ 031-120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